揆園史話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규원사화(揆園史話)는 1675년(숙종 2)에 權僻=북애노인(北崖老人)이라는 자호를 가진 야인이 쓴 역사책인데 서문/조판기(肇判記)/태시기(太始記)/단군기(檀君記)/만설(漫說)로 구성되어 있다.

작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동기가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의 민족적 울분 속에서 민족주체성 재건을 위한 국사(國史)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에 여러 사서(史書)가 출간되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었지만, 작자는 유학자들의 사관은 주체성 없는 존화사대사상에 젖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학자들이 외면해온 고기(古記)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고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작자가 참고한 책은 고려말의 이명(李茗)이 지은 <진역유기 震域遺記>인데, 이 책은 고려초 발해 세자 대광현 등 그 유민이 가져오거나 쓴 <조대기 朝代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삼국유사>보다 훨씬 더 민족주체적 사관에 따라 쓰여진 사서이다. <조대기>는 실재했던 고기임이<세조실록>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진역유기>라는 책 역시, 경희대학교 사학과 조인성 교수등의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설은 대체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조판기에는 환인(桓因)이라는 일대주신(一大主神)이 천지를 개창하고, 환웅천왕(桓雄天王, 일명 神市氏)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정을 베푸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태시기에는 환검 이전, 환웅의 역사를 쓰고 있다. 단군기에는 환검(桓儉)으로부터 고열가(古列加)에 이르는 47대의 왕명과 재위기간, 그리고 각 왕대의 치적이 서술되어 있는데, <한단고기>의 <단군세기>와는 그 재위년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설에서는 유학자들의 사대주의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주를 잃어버린 뒤 약소국으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揆園史話卷之(上)

ㅡ 조판기 肇判記

太古, 陰陽未分, 洪久閉, 天地混沌, 神鬼愁慘, 日月星辰堆雜無倫, 壤海渾融, 生無跡, 宇宙只是黑暗大塊, 水火相 不留刹那; 如是者, 已數百萬年矣. 上界, 却有一大主神, 曰桓因, 有統治全世界之無量智能, 而不現其形體, 坐於最上之天, 其所居數萬里, 恒時大放光明, 麾下更有無數小神. 桓者, 卽光明也, 象其體也; 因者, 本源也, 萬物之藉以生者也.

태고에 음과 양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채 아주 흐릿하게 오랫동안 닫혀 있으니, 하늘과 땅은 혼돈하였고 신과 도깨비들은 근심하고 슬퍼하였으며,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난잡하게 쌓여 질서가 없었고 흙과 바다는 뒤섞여 있어 뭇 생명의 자취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에, 우주는 단지 커다란 암흑 덩어리일 뿐이고 물과 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 움쩍이는지라, 이와 같은지가 벌써 수백만년이나 되었다.

하늘에 무릇 한 분의 큰 주신(主神)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환인(桓因)이라 하는데, 전세계를 통치하는 가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서, 그 모습은 나투지 않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거처하는 곳은 수만 리나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밝은 빛을 크게 내뿜고, 그 아래로는 또한 수많은 작은 신들이 있었다. '환(桓)'이라 함은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니 곧 근본 바탕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며, '인(因)'이라 함은 말미암은 바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단종(端宗)의 장릉(莊陵)을 찾아서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조선조 제6대왕인 단종(1441년 (세종23년)-1457년 (세조3년)의 능은 장릉인데 영월읍에 있다.

서울을 기점으로 장릉을 찾아가는 교통편은 기차는 청량리역에서 제천을 경유 강릉행 영월역에서 하차하면 되고 시외버스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영월읍 서부시장옆 영월 버스터미널에 내리면 된다, 자가용은 경부 중부 고속도로 신갈 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 경유 제천IC에서 38번국도로 영월에 도착할 수 있다.

어떤 교통편이든지 소요시간은 약2시간 내외이면 충분하다.

단종은 문종의 아들로서 8세에 왕세손이 되고 10세에 세자에 책봉 되었고 12세에 왕위에 올랐다. 단종의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인 권 전(權專)의 맏딸인데 현덕왕후(顯德王后)이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만에 돌아가셨다.

경기도 양주에 동구능(東九陵)에 문종대왕의 현릉(顯陵)이 있으며 현덕왕후도 현릉의 마주보는 옆자리에 묻혀있다.

문종대왕 제향때에는 반듯이 안동권씨 당해 문중에서 제례에 참석한다.

단종의 비(妃)는 판돈영부사 송현수의 딸인 정순왕후(定順王后)이다.

문종은 세자가 나이 어린 것을 걱정하여 황보인 신숙주 박팽년 등에게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하였으나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과 결탁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을 계기로 집권하고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 앉게된다. 1455년(세조1년)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류성원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김질의 배반으로 발각되어 모두 처형되었으며 1457년(세조3년)에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降封)되였고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였다. 또한 그 해 가을 영주 순흥에서 금선대군 등과 당시 순흥부사 였던 이보흠 부사와 다시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탄로가 나서 안동에서 사사 되었다.

이에 노산군은 서인(庶人)으로 되어 같은해 10월24일에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가져온 사약을 받고 영월 객사였던 관풍헌에서 17세의 나이로 사사되였다. 그후 1681년(숙종7년)에 신원(伸寃)되어 대군(大君)으로 추봉(追封)되였고 숙종24년에 복위되였으며 묘호(廟號)를 단종이라 하였고 능은 장능(莊陵)이라고 하였다. 장릉도 조선왕능이므로 2009년6월30일자에 세계문화유산으로 포함 등재되었다.

단종이 사사되자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그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음으로 당시 영월 호장이였던 엄흥도(嚴興道)가 자기집에 있던 관(棺)으로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능에 암매장하였다. 이 사실이 탄로 날까봐 엄흥도는 아들과 함께 야반도주하여 영월을 떠나 숨어서 살았다. 그 후 현종때에 우의정 우암 송시열이 건의하여 그의 자손을 등용케 하였고 영조때에는 엄흥도를 공조참판에 추증하고 제문을 하사하였다.

장능은 1516년 (중종11년)에 비로서 왕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580년 (선조13년) 상석과 문석자명등 망주석을 세워 능역을 조성하였다. 지금은 장능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장능 능역을 일괄 안내하고 있다.

장능의 주요 상설은 상영영상물 관련서적 마네킹진열 궁중복식등을 비치한 단종역사관,배견정, 영월군수였던 노산군묘를 찾은 것을 기록한 박충원비각, 충신 등 신위를 모신 장판옥,제사를 지내는 단사, 능지기처소인 수복실, 홍살문, 비각, 영천,정자각, 어명으로 세운 엄흥도 정여각, 능참봉이 상주하였던 재실 등이 있고 재실 앞에는 두 그루의 향나무 고목이 말없이 서있으며 산새들은 비상하며 지저귄다.

망주석은 조선왕능중 유일하게 세호(細虎)가 없다. 그리고 장능의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ㄱ' 자로 꺾여있다,

장능 주위에 미송 소나무 고목은 모두 능을 향해 절을 하듯이 굽어져 있다. 2011년 겨울 폭설로 인하여 많은 나무들이 꺾여지고 휘어져서 설해를 입었다. 능에 오르는 길은 지금은 나무계단을 만들어 150m정도를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한다.

능 관리사무실에는 문화재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참배객 또는 관광객에게 휴대용 마이크로 해설하고 있어서 보느것 듣는 것 사진찍는 것 모두가 해결된다.

장능에서 강쪽으로 200m걸어가면 남한강 상류인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에 이른다. 청룡포는 2008년12월에 국가 지정 명승제50호로 저정 되었다. 청룡포 주위에는 깨끗하게 역사 사적지 내지 관광명소로 정화되어 있다. 그 대개는 단종어소, 단묘재본부시유지, 금표비, 수림지, 관음송, 망향탑, 왕방연시비, 교량, 간이공연장, 전망대 등이 있고 단종의 슬픔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시사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수령 600년 이상이 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보호되고 있다.

장능은 지난 역사의 현장으로서 단종의 얼과 혼이 숨쉬는 곳이다.

몇 번이고 참배하고 다녀가야 하는 충절의 고장 영월 장능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4월 마지막주 금,토,일에는 단종문화재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때에 오면 더욱 좋다. 〈끝〉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경섭(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근(노원) 20만원
△권도연(동대문) 20만원
△권영옥(합천) 20만원
△권기만(안동) 20만원
△권중덕(안동) 20만원
△권병도(대구) 20만원

소 계 6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학(양천) 10만원

※지난 2월호 입급 중 하나 월평분은 권호춘(대전)이며, 3월호 입금 중 권동원(대전)은 권돈원(대전)으로 바로잡습니다.

▣**찬조금**

△권경섭(부총재) 200만원
△부산종친회 30만원
△권종우(서울산악회) 10만원

소 계 240만원

합 계 410만원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 이어서〉

무진 육조소(戊辰六條疏)-요지

다만 걱정되는 바는 세상의 임금으로 능히 이 학문에 뜻을 둔 이가 드물고, 혹 뜻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이는 더욱 드무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옵서는 신성하신 자질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시고 깊고 밝으신 학문이 날로 새로워지시니, 전하께옵서는 이 학문에 대하여 자질이 있고 그 뜻이 있으신 것이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이 네 가지 공부에 있어 이미 시작을 했으니 공부를 더욱 극진히 하시옵소서.

마음을 바루는 [正心] 것은 반드시 일동 일정을 살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올바르지 못함이 없는 것이며, 몸을 닦는 [修身] 것은 곧 한 가지라도 편벽된 데 빠지지 않음이고, 집을 다스리는 [齊家] 것은 곧 하나라도 편벽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독재를 삼가고 굳건한 뜻으로 쉬지 않는 것이오니 누적하기를 많이 하고 경력하기를 오래 하면, 자연히 의(義)와 인(仁)에 정숙되어 그만두려 하여도 그만둘 수 없어서, 홀연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현 중화(中和)의 지경에 들어가게 될 것이옵니다.

넷째는, 도술(道術)을 밝힘으로써 인심을 바로잡을 것이옵니다. 요(堯) 임금 순(舜) 임금과 <하(夏)·은(殷)·주(周)> 삼대의 융성한 시대에는 도술(道術)이 매우 밝아서, 다른 의혹이 없었습니다.

공자와 증자(曾子)와 자사(子思)와 맹자는 이에 밝았으되 지위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으로 가르침을 만세에 전하였는데, 그 뒤 후세의 임금들은 오직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도를 얻어서 일세에 창명하지 못했는데 우리 동방은 고려의 말기에 이르러 정·주(程朱)의 학문이 비로소 들어와 도학(道學)이 밝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본조(本朝)에 들어와 성왕이 잇달아 서로 계승하사 창업수통(創業垂統)하시니, 전하께옵서는 요 임금·순 임금의 자질을 가지시고 제왕의 학문을 몸소 하시어서 예 법도를 준수하는데 뜻을 두시고 <올바른> 다스림을 구하는 것을 인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도에 따라 오도록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인심을 바르는 것을 전하의 새로운 정사를 펴시는데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는, 복심(腹心)에 맡기시고 이목(耳目)을 통하실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 나라의 원수요, 대신은 그 복심이며, 대간은 그 이목이라, 삼자가 서로 합하여 이루는 것은 실로 나라의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사세(事勢)요, 천하와 고금에 한결같이 공통됩니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으로 그 사이에 요란하게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보상(輔相)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모두가 마음을 털어 놓고 생각하는 바를 임금에게 말하고, 계책을 진술하며 도를 의논하여 나라를 경륜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게 될 것입니다.

백익(伯益)이 순(舜) 임금을 경고하는 말에 "염려 없는 데도 경계하여 법도를 잃음이 없게 하시며 안일한 데 놀지 마시고 쾌락한 데 음란하지 마시며 현명한 사람을 신임하여,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간사한 사람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였으니, 임금의 마음이 한 번 경계하는 데 게을리 하여 편안하고 쾌락한 데 흐르면 하루도 못 가서 법도가 파괴될 것이요, 현명한 사람을 끝끝내 임용하지 못하고 간사한 자를 능히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사리와 형세의 필연한 귀결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세월이 가면 고향도 잊고 안주하려는가?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지난호 전진부견의 등장 후미)

쿠데타에 성공한 부견은 자기의 서형(庶兄)인 부법(苻法)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적손(嫡孫)이고 공로도 많은 부견이 황제가 되는 것이 옳다는 여론에 따라 부견은 정치의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다만 황제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웠는지 천왕(天王)으로 한다고 하며, 천왕의 자리에 올랐다. 어느 시대든 자기에게 다가 온 복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복을 불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부견과 부생이 바로 그러한 것 같다.

사마씨의 진(晉)왕조의 황제 사마치와 사마업이 전조의 포로가 되어 죽는 치욕을 당하여 사마씨들은 장강으로 피난하여 사마치의 6촌인 사마예(司馬睿)가 진(晉)왕조를 재건하였다. 역사에서는 이를 동진(東晉)이라고 부른다. 그 후 근 60년이 지나 목제(穆帝) 사마담(司馬聃)이 죽었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지킨 것은 17년 동안이었지만 그는 2살 때에 등극하였으니, 사실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그 대신 그의 모친인 저(褚)태후가 임정칭제(臨政稱帝)하여 실제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목제가 후사 없이 죽자 저태후는 큰집 조카 애제 사마비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황제로 삼았고, 4년 만에 죽자 다시 그 동생 사마혁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황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시기에 동진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태후가 황제 역할을 오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황제를 움켜쥐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60년 전에 사마씨가 받은 치욕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때에 장군 환온(桓溫)이 군대를 길러서 오호(五胡)에게 내어 준 낙양을 수복하였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환온은 자기가 세운 공로를 가지고 동진에서 군권을 다 장악하고, 낙양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하였다.

물론 이때에 낙양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진(秦)과 연(燕)과 더불어 대치하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도읍을 옮길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진(晉)의 역사를 보면 옛날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도읍지 낙양으로 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이제 동진의 조정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조정에서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환온의 의견에 대 놓고 반대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이미 서진이 멸망한 것은 60년 전의 일이고, 비록 서진의 멸망과 함께 오호를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 나온 사람들도 이제는 남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시 애써 잡아 놓은 터를 버리고 옛날 선조들의 고향인 북쪽으로 옮기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 저작랑인 손작(孫綽)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지 말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 이유는 이러하였다. 이미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지 60년이 흘렀으니, 그때 내려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 아들도 이미 늙어 버렸으며, 손자들은 말로 만 들은 낙양에 대한 것 보다 당장 코앞에 있는 일들이 절박하다. 또 천도하고자 하는 낙양은 오래도록 폐허가 되다시피 하여 쓸쓸하기 그지없다. 고향을 수복하여 돌아 가 보았자 가서 고생만 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외에 지금의 동진은 장강으로 북쪽의 오호들과 자연스러운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 구태여 북쪽 오랑캐와 경계를 맞대고 긴장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니 급히 도읍을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천천히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사마씨가 서진 말에 황제 두 명을 전조에 잡혀가서 죽는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그 수모를 갚으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코앞에 있는 이익과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한 번 뒤로 물러나면 두 번도 물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결국 동진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섰다.

얼마 후에 환온은 군사력의 힘으로 황제를 내쫓고 간문제 사마욱을 세운다. 저태후도 근 30년 수렴청정 하였지만 이렇게 현상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는 왕조를 지킬 방도를 갖지 못하였다.

환온의 동생 환현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동진의 황제에게 선양을 받는다. 물론 환현은 다른 군사세력 유유의 등장으로 물러났지만 이미 동진은 사마씨의 왕조는 아니었다. 진취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맛볼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은 되도록 회피하려고 한다. 퇴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가는 신호이다. 그런 모습은 동진말에 있었다고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돌아 볼 일이다.